

전문가 추천 서평

15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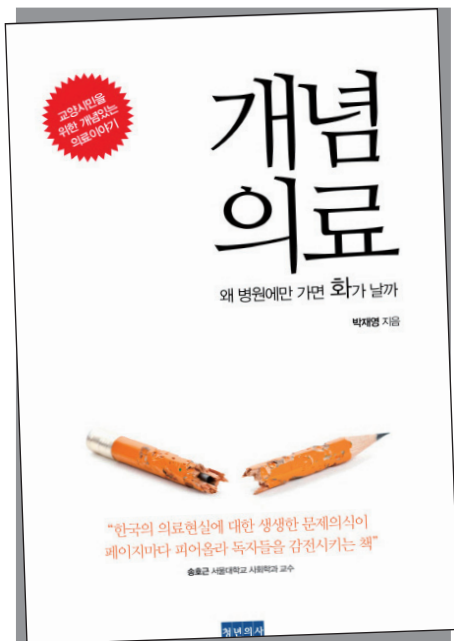
2013년 12월 4일

발행처 국회도서관

발행인 황창화

편집인 우학명

『개념의료 -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 저 자 : 박재영
- 출 판 사 : 청년의사
- 출 판 일 : 2013. 8.
- 쪽 수 : 415

목 차

제1부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한국의료의 현재

- 제1장 한국의료의 오늘을 들여다보다
- 제2장 의료개혁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들
- 제3장 의료개혁이 쉽지 않은 이유

제2부 기특하고도 안타까운 한국의료의 발전 과정

- 제4장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기까지
- 제5장 전국민의료보험 정착의 명암
- 제6장 의료대란의 본질 이해하기

제3부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과제

- 제7장 의료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 제8장 과학기술의 발달과 의학의 미래
- 제9장 양보, 관용, 그리고 사회적 합의
- 제10장 시민이 똑똑해져야 대한민국이 건강해진다

서평자_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 도쿄대학교 보건관리학 박사

개념 있는 의사, 시민, 의료정책을 기대하며

재주 많고 기발하다 여겨왔던 박재영 박사가 드디어 일을 저질렀다. 한마디로, 의료분야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전문성과 일반 독자의 흥미를 위한 대중성이 조화된 탁월한 저서다. 1부는 ‘한국의료의 현재’, 2부는 ‘한국의료의 발전 과정’, 3부는 ‘향후의 과제’를 다룬다. 미국 대통령이 부러워하고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배우겠다고 오고 있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그러나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의료현장에서 보는 현실은 도무지 짜증스러운 것들뿐. 한국의료의 두 얼굴을 생생한 장

면 묘사와 날카로운 분석으로 웅변한다. 단기간에 적은 의료비로 이룬 전 국민 의료보장과 높은 의료접근성, 높은 건강지표 등이 장점이고, 경증질환 위주의 건강보험급여, 높은 본인부담과 비싼 비급여기술, 그리고 과잉검사, 짧은 진찰시간 등등이 단점이다.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려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의사, 약사, 한의사 등 모두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위해 떼쓰듯이 한다. 정치인, 학자, 언론인도 책임을 피하기 힘들다.

저자는 의료와 의료제도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해관계와 사안의 복잡성을 '의료는 문화다'라는 한마디로 압축한다. 제왕절개 선호도의 차이도 문화의 차이이다. 약 위주의 의료문화를 선교사 알렌과 조선시대의 문헌을 인용하면서 설파한다. 3분진료와 빨리빨리 문화의 연결, 성형수술과 외모지상주의의 연관성, 평등주의의 의료제도에 대한 영향 등등도 제시된다. 'side effect'의 번역어 '副作用'이 '잠작용'으로 오해된다는 설명도 재미있다. 의료개혁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의 사례로 지불제도, 의료민영화, 의료일원화, 의대 증원 등이 거론된다. 선택진료비제도도 다루고 있다. 이를 폐지하는 것은 병원 경영상 가능하지 않고, 이를 급여화하는 것도 보험재정상 가능하지 않으므로, 대안은 '보완개선안'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선택진료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슬쩍 덧붙인다. 갓 면허를 딴 의사와 논문 100편을 쓴 의사 사이에는 수가의 차등을 두는 것이 맞다는 것. 하지만 저자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의사간의 차이는 건강보험수가가 아닌, 병원 내부의 보상 체계에서 해결해야 할 내용이라는 점이다. 환자는 개별 의사를 판단할 능력이 거의 없다. 대부분의 환자는 병원을 보고 찾아오는 것이다. '팀 어프로치(팀 접근법) 등으로 성과를 내는 병원에 더 많은 보상이 들어가면 개별 의사에 대한 보상은 병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것인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국의료의 발전 과정도 생생하게, 그러면서도 분석적으로 묘사된다. 의료보험제도 도입 당시의 상황을 보건사회부의 '김 실장'이라는 가상적 인물을 설정해서 기발하게 보여준다. '미안하다 돈이 없다', '하면 된다, 일단 하자', '30년 후에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한국 스타일'이라는 소재목록만으로도 실감 나고 박진감 넘친다. 소위 '저수기' 상황에서도 의사들이 어떻게 망하지 않았을까? 저자는 암묵적으로 인정되던 리베이트를 거론한다. 리베이트 논의는 의약분업과 의료대란 논의로 연결된다. 의약분업은 저자가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사건인 듯하다. 의약분업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었는데 미숙한 일 처리로 '그해 여름이 그렇게 뜨겁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책의 가장 큰 묘미는 제3부에 있다. 저자의 의학적 전문성과 저널리스트로서의 분석력이 적절히 발휘된다. '디지털 기술'과 '개인 맞춤형 의학'의 발전이 의료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생생하다. 의료화(medicalization) 현상의 뒤에 의사와 언론의 책임이 있음을 지적한다. 대안도 제시된다. 예방과 건강증진에 대한 투자, 보건의료종사자의 역할 재정립, 의료소비자의 각성 등등. 원격의료에 대한 의사들의 거부반응을 '변화에 혹시 수반될지 모르는 경제적 수입의 상실이나 전문가로서의 권위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단하며 초찰살인 한다. 저자는 의사 출신으로서 '청년의사'의 주간(主幹)으로 활동해왔지만,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의사면허갱신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의료일원화를 위해 모든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주는 방안까지도 제시한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의사 중심적 시각이 묻어있다. 의사증원의 문제, 수가와 지불개혁의 문제 등등. 병원에만 가면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 이유로 저자는 '공감과 소통의 부재'를 든다. 의료분쟁의 해결을 위한 '공개, 사과 및 배상'에 관한 미국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자는 이 기슭에 기인한 불편한 진실들을 보여주면서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야 함을 역설한다. 이 책은 원칙 지키기와 융통성 발휘하기 사이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개념 있는 의사, 개념 있는 시민, 개념 있는 의료정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국회도서관 (TEL. 02-788-4228)

